

불자 세상보기



고유현
동국대 교수·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한반도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행위자는 남북한과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이명박, 김정은-김정은, 오바마, 후진타오(胡錦濤) 등 주요국 지도자들, 남한의 시민사회와 북한의 반체제세력 등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 심화와 남북간 국력격차도 한반도 통일환경의 중요 변수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수로 작용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는 통일보다 평화·변경에 관한 담론이 지배적이었었다. 지난 두 정부는 화해·협력, 공존·공영에 기초한 점진적 통일을 모색했다.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지금은 공존 패러다임보다는 흡수통일 담론이 정세를 지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외부세계의 급변사태론에 맞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조기에 공식화하고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년간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경제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뤄질 것이라 낙관적 기대는 중국변수를 간과한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북중간에는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을 명시한 1961년에 맺은 '우호협조와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동맹조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이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외세의 개입에 대한 중국의 자동개입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분단구조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기반을 둔 불안정한 구조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전체제에 기초한 한반도의 불안정 구조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변수

한반도 통일환경에서 남북한 내부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외부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다. 남한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어 G2 나라들의 협력 없이는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새롭게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실력국가' 북한을 후원하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계속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이 대북압박에 맞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신냉전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개입 정책과 중국지도자들의 거침없는 한반도 관련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북한을 중국경제에 편입시켜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중국으로선 핵개발보다 북한 붕괴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더 사회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중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피로써 지킨 국경을

북한붕괴로 다시 위협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핵개발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공지에 몰린 북한은 외부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주체·자주노선과는 맞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 중국의 노동분업 구조에 편입해서 정권과 체제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급변사태론을 내세워 통일준비만 하다가 북한이 안정적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지속할 경우 '달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북한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압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체제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 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개방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社說

통도사는 자성·쇄신의 시험대

영축총림 통도사의 주지 자리를 두고 시작된 갈등이 급기야 방장 불신임으로까지 번졌다. 전체 통도사 대중스님 414명 중 위임자를 포함한 227명의 뜻이다.

산중총회를 열고 방장스님을 불신임하고 새 주지를 뽑는 데 합의한 대중스님들은 총림의 비상운영을 위해 70명의 스님을 대표로 산중회의까지 꾸렸다. 산중회의는 산중총회 결의에 따른 비상대책기구라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장스님 측인 경봉문도회는 산중총회 자체가 방장스님의 허락 없이 진행된 무효이며, 위임장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암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체제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 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개방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사는 이들을 모두 사방 1장(丈)짜리 자신의 거처에 자리하게 했다. 이때부터 방장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춘 어른스님을 뜻하는 말이 됐다.

총련·총범의 글로 새겨진 권위가 방장스님에게 있다면, 대중의 공의가 모인, 마음으로 새겨진 심인이 산중회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둘은 어느 하나만 있다면 쓸모가 없다.

부처를 일컬어 출격대장부(出格大丈夫)라 했다. 총련·총범을 초월해 공의를 모으고 행사한 산중회의 스님을 그 형태다. 산중총회에서, 또 산중회의를 통해 그 뜻을 펼 만큼 됐다. 알릴만큼 알렸다.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몸의 움직임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조어장부(調御丈夫)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 했다. 총련·총범의 권위가 정발로 방장에게 있다면 방장스님은 명칭의 유래처럼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방장스님 측은 대중스님들이 무엇 때문에 방장스님의 뜻을 거슬렀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갈등은 통도사 내부에서 풀어야 한다. 총림 주지의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결단에 기대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된다.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하고 있다. 구호를 외쳐온 지 반년이 지났다. 이번 통도사의 갈등은 진정한 자성과 쇄신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조계종도의 자성과 쇄신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이다.

올해는 가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지 1366주년 되는 해이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지종찰(佛之宗刹), 국지대찰(國之大刹)의 위상에 걸맞는 가풍을 펼치길 바란다. 모쪼록 지혜롭고 아름다운 회향을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외사출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현물뉴스 불교포탈 부다피아 소평물 현물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칼럼



학해 스님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소중한 대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가볍게 생각하는 상대나 물건에 대해서는 성의 없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티베트불교의 한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대상을 대할 때 보통 세 가지 태도로 우리의 자세를 형성한다고 한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대상에게는 무관심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대상은 당연히 소중한 것이 아니다. 소중한 것이므로 사라지든 생겨나든지 간에 아무런 감성과 감정을 보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다. 평소 애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소중한 존재인 개똥을 누가 눈여겨보

라! 도리어 우리나라 외국의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며 산책하다가 개똥을 그냥 두고 가버리다가 들키면,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생겨난다.

그러나 개똥은 분명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이 세상에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중생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동문학가중에 권경생 씨라는 분이 있다. 1937년에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와 평생을 경북 안동의 작은 교회의 종지기로 가난한자의 소외된 삶을 살며 2007년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주옥같은 글들을 많이 쓰신 분이이다.

그 분이 쓴 가장 아름다운 글 중 '강아지똥'이라는 글이 있다. 시골집 돌담길 순이네 강아지가 싸고 떠나서 홀로 남겨진 어린 강아지똥은 작은 참새나 조그만 흙덩이마저도 하찮게 보는 여러고 쓸모없는 존재이다. 그나마 말뚱무라도 되어주던 흙덩이도 가고 추운 겨울을 외롭게 보낸 똥은 앞뜰과 병아리 가족을 만나지만 그들도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자신의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민들레꽃의 거름이 되어 고요히 죽어간다는 내용이다.

개똥과 포메라니안

권경생씨는 생전 집 앞에 있는 넉적바위에 앉아 시골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낙을 삼았다한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에게 바위에 있는 이끼를 가리키며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곤 했다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쓸모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우리 삶의 근원들이다. 이런 사실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 삶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선에 서게 된다.

출가 전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작은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키우며 살던 시기가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고, 피곤에 절은 나는 아침에 나갈 때 꼬리 치는 강아지를 그냥 무시하 지나치고, 저녁에 돌아와 잠자리 방에 들어갈 때 꼬리치며 반가워하는 강아지를 무시하 지나치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안평 근교의 산책로를 지나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사견이 우리집 강아지를 물고, 아버지를 물고 도망가 버렸다. 도사견에 물린 포메라니안은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친 아버지는 도사견이 쫓아오는 바람에 죽은 포메라니안을 쟁겨올 수가 없어 풀밭에 던져놓았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피곤에 지쳐 문을 열어보니 꼬리치던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저 초지중을 들은 후에야 강아지가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눈물이 흘러 몇 시간동안 잠을 설쳤다.

그런식으로 한 일주일동안 죽은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곤 했다. 내가 무관심했던 그 강아지에게 평소 애 잘해 주지 못한 것이 한(恨)이 된 것이다. 내게 아무런 존재 가치 없다고 느꼈던 그 강아지는 사실 내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강아지는 전생애 가족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복덕은 짓지 못했으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을 때, 강아지이라도 태어나서 함께 사는 것이라 한다. 버림받거나 소외된 많은 이들도 이 강아지처럼 사실은 우리의 가족인 것이다. 으르릉 세상 모든 존재들을 바라볼 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길 바란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이재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